

# 식암 김석주의 책문 연구

이 영 환\*

- I. 머리말
- II. 책문의 현황
- III. 김석주 책문의 특징
  - 1. 虛頭 쓰기: 簡潔함의 追求
  - 2. 逐條 쓰기: 學問의 表出과 文章의 再構成
  - 3. 設弊와 救弊를 통한 政見의 提示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책문은 과거의 시험 과목 중 하나로 정교한 짜임새를 추구한다. 내용은, 책제에서 묻는 사항에 부응하여 충실히 서술해야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책문 연구는, 책제와 함께 이루어져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 못지않게 정형화된 책문의 과정과 이에 따른 구조 분석도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허두, 축조, 설패와 구패와 같은 중요한 과정을 중심으로 구조를 아우르는 연구를 했다.

김석주는 책문에 뛰어난 문인이었으며, 대부분 과거를 위해 창작했다. 14편의 책문이 문집에 남아있는데, 그 가운데는 과거시험 연습용도 있었으며,

---

\* 경북대학교 시간강사 / dmsytery@hanmail.net

실제 시험에 썼던 내용도 있다. 그는 과거에 장원을 한 인물답게 책문에 심혈을 기울였다. 글의 짜임새부터 내용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심혈을 기울였다. 이러한 과정은 그가 형식적인 면에서 당대 최고의 문장가가 되는 자질을 길러주었다. 그는 책문으로 과거에 장원급제한 것과 더불어 문장력의 향상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얻었다.

◆ 주제어

---

책문, 김석주, 과거, 문장, 표현, 산문

## I. 머리말

策文은 科文 六體 중 하나이다. 策文은 정해진 형식에 따라 서술해야 한다. 더구나 이 문체가 갖추어야 할 체제가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하다 보면 글의 길이가 매우 길어지게 된다. 따라서 치밀한 짜임새와 맥락을 형성하여 글을 끝까지 이끌어 가는 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쉽게 이를 수 없는 문체이다. 글 전체를 구성하는 편법·장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문장이 정교하게 안배되어야만 비로소 한 편의 책문이 완성될 수 있다.

책문은 특정 문제에 대해 자신의 소견을 피력하고, 국정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이는 문체이다. 이러한 책문의 특성상 인재를 선발할 때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임금이나 집사자가 요구하는 문제에 응답함으로써 책문이 구성된다. 김석주의 경우 과거 시험 준비와 실제 시험에서 작성했던 책문이 전한다. 책문은 주어진 책제에 효율적으로 응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제를 떼어놓고 책문의 우열을 논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제와 책문의 연결성을 논한 연구는 아직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석주의 책문을 논하면서, 책제에 따라 어떻게 책문이 구성되는지 그 원리를 분석할 것이다.

그동안의 연구는 책문의 일반적인 형식과 문체적 특징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그나마 연구의 손길이 많이 미치지 못했는데, 무엇보다 이 문체가 실용적인 분야로 분류되는 데 큰 이유가 있다. 과거시험과 국가의 물음에 답하는 형식이다 보니 개인적인 정서나 감회가 배제되기 때문에 문예적인 가치가 떨어진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책문의 가치는 내용적인 가치보다 형식적인 측면서 큰 의미를 지닌다. 책문은 매우 잘 짜인 글이며, 고도로 숙달되지 않으면 글 전체를 운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책문을 연마하여 한편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문장력이 그 만큼 탁월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책문이 갖추어야 할 형식은 여타의 산문 분야에 전이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김석주는 조선 후기 산문사에서 형식미로 손꼽히는 문인이다. 그의 책문을 연구하는 것은 김석주 문장의 완결성과 표현미를 연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과문학습은 도학과와의 입장에서는 가치 없는 문장이었다. 그러나 책문과 같은 과문 학습을 통해 도학과는 물론 당시 지식인들의 문장력이 향상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책문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산문사의 문예미를 논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책문의 현황

김석주의 책문은 모두 14편이 전한다. 이 작품들은 宦路를 걸으며 조정의 물음에 답한 것은 없고, 오로지 과거와 관련하여 창작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책문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과거를 위해 14편에 달하는 책문을 남기고 있는 문인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책문의 창작을 통해 다져진 문장력은 이후 김석주가 議論文이나 記事文과 같은 산문을 창작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식암유고』 21권에 실려 있는 <策本> 세 편은 과거를 위한 습작이다. 실제 科場에서 작성한 책문은 別稿에 실려 있다. 별고는 김석주의 글 중에서 과거 시험과 관련 있는 것만을 모아 놓은 것이다. 여기에는 책문으로 殿策 4편과 執策 7편이 실려 있다. <策本> 세 편은 모두 국가의 경영에 관한 내용이다. 殿策은 임금이 출제한 문제에 답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강성해지는 방법에 대해 서술한 <自強>, 치란의 조짐을 살펴 政事에 힘써야 한다는 <幾微>, 국가의 계획적인 경영에 대해 서술한 <規模>, 하늘어진 사람·마음을 공경해야 한다는 <敬>이 있다. 執策은 집사가 출제한 문제에 답하는 것으로서, 기러기의 이치로 정사를 논한 <鴻雁>, 칠정 가운데 욕심에 대해 서술한 <慾>, 지난 역사에서 본받을 것을 취해야 한다는 <師古>, 편안함을 경계해야 한다는 <逸>, 늙음과 장수의 이치로 올바른 정사를 제시한 <老>, 과단의

필요성을 역설한 <斷>, 참소와 그것을 면할 방법을 제시한 <讒毀>가 있다.

책문의 형식을 자세하게 밝혀 구체적으로 실제 작품의 분석에 적용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책문의 일반적인 문체적 특징을 고찰하면서 김석주 책문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柳壽垣(1694~1755)은 <論科擧條例>에서 책문을 쓰면서 삼가야 할 사항을 언급했는데,<sup>1)</sup> 주어진 조건에 따라 서술해야 함을 강조했다. 따라서 책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策題를 검토해서 살펴봐야 한다. 왜냐하면, 책문은 주어진 책제의 주제와 질문 방향에 따라 서술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策本>에는 책제가 붙어 있지 않다. 반면 別稿에 실려 있는 작품은 모두 책제가 실려 있다. 응시자는 책제를 옮겨 적은 다음 자신의 의견을 격식에 맞게 써 내려 가는 것이 하나의 규식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면 별도의 책제가 없는 <策本>은 습작이 분명하다. 습작이라 해서 작품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나, 본고는 김석주의 책문을 논하면서 분석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주로 책제가 竝記된 작품을 대상으로 삼았다.

### III. 김석주 책문의 특징

『策文準的』에는 책문을 쓰는 단계가 제시되었다. 그 단계는 일반적인 과정이며, 각 단계마다 책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다. 虛頭는 책문의 시작이 되며 책제를 이해하는 수준을 나타내므로 반드시 필요하고, 逐條는 제시된 문제를 짜임새 있게 배치하는 것으로, 책문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제가 되므로 반드시 있어야 한다. 設弊와 救弊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책문의 본령이라 할 수 있다. 반면, ‘雖然’과 같은 과정은 책문에 따라 생략되기도 한다. ‘雖然’의 과정은 주장하는 논거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1) 柳壽垣, 『迂書』, 卷2, <論科擧條例>, “或曰, 然則科擧文字如何而可. 答曰, 策問雖曰敷奏以言, 既不免專以言辭取人之病, 而詞華藻麗之言, 尤是有道者之所羞也. 然於其中, 亦必先器識而後文辭, 取敦實而黜輕靡, 以存求士之本意, 然後國家庶有得人之休矣.”

쓰인다. 주장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제시하고, ‘雖然’이라는 부사를 둠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불가피함을 피력할 때 쓰인다. 이러한 세부적인 과정은 생략되기도 하며, ‘雖然’이라는 글자를 쓰지 않고서도 문맥적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책문에서 중요한 단계인 虛頭, 逐條, 設弊와 救弊를 중심으로 김석주 책문을 분석하기로 한다.

## 1. 虛頭 쓰기: 簡潔함의 追求

虛頭는 책문의 서론에 해당한다. 과거에 응시하는 자는 질문격인 책제를 그대로 옮겨 적은 다음에 이어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머리가 바로 허두이다. 『책문준적』에는 모범이 될 만한 책문을 수록하면서 앞머리에 책문 작성 요령을 기록했다.<sup>2)</sup> 여기서 허두 부분을 작성할 때 유의할 점으로 간결함을 중요한 특징으로 뽑았다.<sup>3)</sup> 또한, 기괴함을 피할 것을 아울러 주문했다. 이 두 가지를 충족하면서 한 편의 글을 열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응시자들은 주로 일반적인 내용으로 평이하게 시작했다. 이런 이유로 정조는 책문의 虛頭를 ‘물혹 덩어리와 같이 불필요한 것’으로 보았으며<sup>4)</sup>, 柳壽垣은 배우들의 잡극과 같다고 했다.<sup>5)</sup> 사실 虛頭의 형식은 策文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朴文鎬(1846~1918)는 “우리나라 科文 六體는 각각 다르지만 虛頭를 사용하여 글을 시작하는 것은 같다. 이는 실로 근래의 일인데 천편일률로 死法을 이루니, 古文과는 두 갈래로 나뉘게 되었다.”<sup>6)</sup>고 하여 科

2) 최식, 「策文의 특징과 글쓰기 : 『策文準의』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39, 2009.

3) 『策文準의』, 「策文總論」, “虛頭, 破頭喝起數句, 必務切實, 而含一篇大旨, 雖用古語, 不可多也. 繼而演繹, 亦務精切, 雖多而巧轉, 則主司忘其支離. 凡爲文務精, 不務多, 務實, 不務奇, 作策者, 頭辭多且奇, 此固文之病也. 然不能忘情於科目, 則不可全背時好.”

4) 正祖, 『弘齋全書』, 卷49, 「策問」2, <策規>, “所謂虛頭之衍義, 眞同贅疣.”

5) 柳壽垣, 『迂書』, 卷2, 「論科舉條例」, “所謂虛頭, 大半爲俳優雜劇.”

6) 朴文鎬, 『壺山詩文評』, “我國之科文六體, 雖各不同, 其用虛頭以起焉則同, 此實近年事, 千篇一律, 便成死法, 與古文判爲二道耳.”

文 各體의 虛頭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했다. 그중에서 특별히 책문의 虛頭를 문제 삼는 것은 시무와 경세에 힘써야 할 책문의 본연에서 멀어졌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책문이 시무와 경세에 대해 임금과 조정이 자문하고 신하가 이에 답하는 문체임을 감안한다면, 허두도 그 실용적인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책문준적』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문호는 “근래에는 허두를 숭상하여 그 문장을 살핀다. 왜냐하면, 허두를 숭상하는 것이 設弊와 救弊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逐條를 숭상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다.”<sup>7)</sup>라 하여, 허두에서 문장력이 판가름난다고 했다. 『책문준적』에서 제시된 것처럼 글 전체의 내용을 압축하여 간략하면서도 기이한 글이 되지 않게 하는 능력에 따라 그 문장력이 드러난다.

김석주는 다양한 방식으로 허두를 열었다. <自強>에서는 진덕수의 고사를 인용하여 破頭했다. 이것은 현재의 문제와 대응되는 상황을 역사에서 차용하여 활용함으로써 그 참신성을 얻은 방식이다.

신은 대답합니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南宋의 嘉定 연간에 韃靼이 날로 일어나 中國이 날로 깎였습니다. 이때 學士 眞德秀가 禁林에 숙직하고 있으면서 한밤중에 서성대다가 일어나, “이때는 바로 우리나라 安危가 장차 판가름날 때이며 상하의 君臣이 두려워하며 나라의 보존을 도모할 때다.”라 하고 이에 籌邊八事를 올려 自立할 대책을 아뢰고 또한 人君의 立志가 自立의 근본이 됨을 말했습니다. 신은 그 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고 당시의 임금이 그것을 쓰지 않은 것을 통렬히 한탄했습니다. 한번 그 말을 따서 우리 임금을 위해서 올리려고 생각했습니다.<sup>8)</sup>

7) 위의 책, “中古尙設救以觀其經濟, 百年來尙逐條以觀其瞻博, 近日尙虛頭以觀其文章, 盖尙虛頭者, 雖遜於設救, 亦有勝於逐條之尙.”

8) 金錫胄, 『息庵遺稿』 「別稿」, 卷下, <自強>, “臣對, 臣謹按南宋嘉定中, 韃靼日興, 中國日削. 時學士眞德秀寓直禁林, 嘗中夜彷徨而起曰, ‘此正吾國安危將判之秋, 君臣上下惕厲圖存之日也.’ 遂上籌邊八事, 以陳自立之策, 且言人君立志爲自立之本. 臣每讀其書, 未嘗不慨然流涕, 痛恨於時君之莫之用也, 思一欲採掇其言, 以爲吾君獻.”

<自強>은 展策으로 임금이 法制, 紀綱, 恤民, 賢才, 鍊兵, 積糧 등 여섯 가지 문제에 대해 自強의 方策을 묻자 이에 대답한 것이다. 김석주는 현재 위태로운 조선의 상황을 南宋의 嘉定 연간과 대응시켰다. 이 책문의 전반에 걸쳐 흐르는 논지는 自強과 반대로 전개되는 현실 비판이다. 김석주는 진덕수가 올린 籌邊八事의 요지를 ‘人君의 立志’로 보았다. 조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한 사안이 임금이 올바른 뜻을 세우는 것이라는 논지는 글 전체를 관통하는 맥락이다.

또한, 주어진 책제와 어울릴만한 사물을 차용하여 그 특징과 성격을 설명하면서 破頭하는 경우도 있다. <幾微>는 조짐을 살펴 재앙을 막는 내용인데, 欽器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破頭했다.

신은 대답합니다. 옛적에 신이 가만히 欽器를 보고 마음에 느낌이 있어,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 그릇은 비록 기울어져도 넘어지지 않는구나. 이것으로 인하여 바로잡으니 그 안정함이 이것에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기울어지니 그 엎어짐이 이것에 있구나! 아! 그 장차 안정해지고 장차 위태로워질 징조로다! 그 盤石처럼 되거나 累卵처럼 될 조짐이로다!’라 했습니다. 기미를 살펴 상황을 전환하는 논의에 대해 한번 이러한 그릇을 소유한 사람과 아름다운 강론을 하고자 생각했습니다.<sup>9)</sup>

欽器는 속이 가득 차면 엎어지고, 적당하게 차면 반듯하며, 비면 기울어지게 만든 周나라 때의 쇠그릇이다. 가득 차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가까이 두고 경계로 삼는 기구로 사용되었다. 『공자가어』에 따르면, 공자가 주나라 사당에 들어가 이 그릇을 보고 子路를 시켜 물을 부어 시험하게 했다. 조선 초기에는 成石璘이 임금의 경계를 위해 定宗에게 欽器圖를 바치기도 했다. 김석주는 기울어졌으나 넘어지지 않는 欽器의 특징과 연결하여

9) 金錫胄, 『息庵遺稿』 「別稿」, 下, <幾微>, “臣對, 昔者臣竊嘗觀於欽器而有感乎心, 喟然而嘆曰, 是器也雖欽而未墜, 因是而正之, 其安也在茲, 因是而傾之, 其覆也在茲. 噫嘻, 其將安將危之徵乎, 其盤石累卵之兆乎. 思欲以審幾轉移之論, 一與有此器者, 講劇之雅矣.”



그 속에 盤石과 累卵의 조짐이 있음을 포착했다.

한편, 김석주 자신이 진리를 깨달아 가는 과정을 차례로 서술하며 破頭하는 경우도 있다. <師古>는 옛것을 본받되 겉모양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본받아 확장해야 한다는 논지의 책문이다.

末學 後生이 뜻을 품음은 높디높아 오직 옛것을 좋아했습니다. 일찍이 세 상에서 흙 簋와 흙 銅을 만드는 것을 보고는 반드시 말하기를 “이 그릇은 옛 그릇이니 이 사람은 또한 古人이다.”라 하고, 드디어 그 그릇을 본받고자 하고, 세 상에서 殷나라 사람이 썼던 屨와 周나라 사람이 썼던 弁과 畫衣를 만드는 것을 보고는 반드시 말하기를, “이것은 옛 옷이니 이 사람은 또한 古人이다.”라 하며 또 그 옷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다시 생각해보고 말하기를 “그릇의 옛 형태를 본받을 수 있고 옷의 옛 형태를 또한 본받을 수 있으나 어찌 옛사람의 마음을 본받는 것만 같겠는가. 堯의 그릇이 桀의 그릇과 같았고 堯의 옷이 桀의 옷과 같으나 마지막에는 堯는 지극한 聖人이 되었고 桀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으니, 그 마음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그 그릇과 옷을 다 버리고 오직 古人의 마음을 구하는 것을 마음으로 삼고 先覺 君子에게 한번 물어보는 아름다운 일을 하고자 생각했습니다. 지금 科場에서 밝은 질문[策題]을 받았는데, 특별히 ‘師古’를 제목으로 삼으니, 아! 執事는 진실로 저의 스승이십니다.<sup>10)</sup>

책제의 주제가 ‘옛것을 스승 삼다.’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 개념인 ‘옛것’을 언급하며 시작했다. 자신이 옛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먼저 밝고, 그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유는 본받을 대상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 古人的 유물을 ‘師古’로 여겼던 과오를 반성했다. 堯와 桀는 같은 그릇과 의복을 사용했음에도 어짊과 어리석음이 차이가 난다는 증거로 논의를 분명히

10) 金錫胄, 『息庵遺稿』 「別稿」, 下, <師古>, “末學後生, 有志嚆嚆, 惟古之爲嗜, 嘗見世之爲土簋土銅, 則必曰是器古之器, 是亦古人也, 遂欲師其器, 嘗見世之爲屨弁畫衣, 則必曰是服古之服, 是亦古人也, 又欲師其服, 已而復思曰, 器之古可師, 服之古亦可師, 然豈若師古之心哉. 堯之器與桀之器同, 堯之服與桀之服同, 卒之堯至聖而桀至愚者, 以其心也. 乃盡棄其器與服, 而惟以求古人之心爲心, 思欲一質於先覺君子雅矣. 今來禮闈, 獲承明問, 特以師古爲目, 嗚呼, 執事是真我師.”

했다. 물론 김석주가 실제로 유물을 師古로 여긴 적은 없었을 것이다. 단지 破頭하기 위하여 ‘師古’의 본질을 깨달아 가는 과정을 서술하기 위해 설정했을 것이다. ‘옛사람의 마음을 본받는 것’은 전반에 걸친 논지이다. 책제의 ‘師’에 착안하여 ‘執事는 진실로 저의 스승입니다.’라고 한 부분에서 김석주의 재치를 엿볼 수 있다.

책제에서 물어보는 시무의 내용에 따라 정사와 비슷한 일을 비유로 들어 破頭하는 경우도 있다. <規模>는 국가를 경영함에 어떤 밑그림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글이다.

신이 일찍이 보건대 세상의 궁실을 건축하는 자들은 반드시 먼저 한 자 되는 담장에 궁실의 설계도를 그려놓습니다. 무릇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곳에는 여름철 누각을 짓고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곳에는 겨울철 온돌방을 지으며, 지대가 넓은 곳에는 대각과 홍문관을 짓고 지대가 높은 곳에는 정자나 난간을 지으니, 그 높낮이와 크고 가늠이 제도를 꼭진하게 다했습니다. 그 완성됨에 미쳐서 담에 그렸던 설계도와 비교해보니 털끝만큼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신은 이에 크게 탄식하며 말하기를, “훌륭하다. 工師의 재능이여! 이 사람은 충분히 국가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진 인재를 얻어 제도를 정하는 경우는 법이 될 만한 일이고, 천 번 생각한 뒤에 한 가지 겨우 깨달은 것을 가지고 궁궐 문을 밀치고 구궁궁궐로 들어가 우리 임금의 위해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경우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11)

<規模>는 국가의 계획을 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한 것이다. 김석주는 賢才를 얻는 것이 우선 과제라 했다. 그러므로 이 책문의 虛頭에서 규모와 인재 등용을 연결하여 서술했다. 임금이 국가를 경영하는 것은 工師가 건물을 짓는 것과 비슷하다. 임금에게는 국가를 이끌

11) 金錫胄, 『息庵遺稿』 「別稿」, 下, <規模>, “臣對, 臣竊嘗觀世之營宮室者, 必先畫宮於盈尺之堵, 凡涼以爲夏閣, 煖以爲冬室, 侈以爲珍臺文館, 巍以爲疊榭層軒, 其高低鉅纖, 曲盡制度. 及其既成, 而較諸所畫, 則蓋無毫髮之差焉, 臣於是喟然而嘆曰, 良哉工師之能, 是足爲爲國家, 得賢才定規模者法矣. 思欲以一得之愚, 排闥闖入九重, 而爲吾君誦者雅矣.”

어갈 기본 방침이 있을 것이고 工師에게는 건물의 설계도가 있을 것이다. 이 둘 사이의 유사점을 破頭의 소재로 삼았다.

虛頭는 책문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책제에서 제시한 현재의 문제점은 물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과 방법까지 虛頭에 함축해야 한다. 그러나 간략하게 제시하고 기이함을 피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破頭에서 문장력이 결정된다고 한 것이다. 간략하게 하면 문제점에서 해결까지 전체 내용을 모두 담아내기 어렵고, 기이함을 피하다 보면 범범한 글이 된다. 김석주는 개성 있는 意章을 내세워 破頭함으로써 돋보이는 글을 쓸 수 있었다. 그것은 주어진 책제에 맞는 소재를 취하여 다양한 서술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표현효과를 극대화했기에 가능했다.

## 2. 逐條 쓰기: 學問의 表出과 文章의 再構成

책문에서 逐條는 책제의 내용을 분석하여 응시자가 이해한 대로 새롭게 서술하는 것이다. 책제는 懸案을 묻기 위해 사용되는 전고를 일부러 간략하게 하여, 응시자의 독해력을 시험한다. 따라서 逐條를 통해 試官은 응시자의 지식수준을 가늠한다. 『책문준적』에서는 逐條를 서술할 때 유의할 점으로, 평범해서는 안 되며, 다음에 이어지는 救弊와의 조응을 들었다.<sup>12)</sup> 책문의 실효성을 강조한 정조는, 逐條는 질문에 따라 대략 제시하기 때문에 병폐가 된다고도 했는데,<sup>13)</sup> 책제에 의존하여 그 내용을 다시 서술하기 때문이다.

“백 년 이래 逐條를 숭상하여 그 해박함을 살폈다.”<sup>14)</sup>는 박문호의 기록에서, 逐條가 지식수준을 가늠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책제에서는 주제에 대해 다양한 전고를 사용하므로 명확한 독해 없이는, 設弊와 救弊에 이를 수 없다. “무릇 출제할 적에 經과 史는 질문을 함축하여 드러나지 않게 하여,

12) 『策文準的』, 「策文總論」, “下字作句, 不可凡庸, 是非與奪, 一一皆應救弊之意, 行文用對耦文字, 固俗伎陋習, 至於逐條, 不可不用也.”

13) 正祖, 『弘齋全書』, 卷49, 「策問」2, <策規>, “逐條之隨問略提.”

14) 朴文鎬, 『壺山詩文評』, “百年來尙逐條以觀其瞻博.”

대책하는 자의 재능과 식견을 살펴야 한다.”<sup>15)</sup>는 유수원의 말도 이를 뒷받침한다. 김석주의 책문 중 참조의 원인과 그 방비책에 대해 논의한 <讒毀>는 逐條가 매우 치밀하다.

逐條를 분석을 위해서는 책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책제와 逐條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김석주의 학식과 문장력이 드러날 것이다. <讒毀>의 책제는 다음과 같다.

순임금에게 朕聖의 가르침이 있고, 叔孫에게 自絶의 책망이 있다. 唐虞의 至治와 仲尼의 大聖으로도 오히려 이 근심이 있는 것은 어찌서인가? 伍子胥는 功을 세웠지만 鴟夷에 담겨 떠다니는 것을 면치 못했다. 후자는 임금의 사랑이 돈독하지 못해서였다고 한다. 楚姬는 임금의 恩愛가 높았는데도 또한 어찌 郢를 베이는 禍를 당했는가? 鼂令은 지혜가 있었는데도 왜 마침내 東市에서 베임을 당했는가? 혹 일을 깊이 파고들어 생각해서 재앙을 불러들였다고 한다. 屈原은 청렴하고 사사로움이 없는데도 또한 어찌 汨羅水에 잠겼는가? 申生은 烹刑을 기다리는 재앙을 입는가? 혹 人倫의 변고를 만났다고 하는데, 伯奇는 자혜로운 아버지를 만났으나 伯勞의 상함이 있었다. 鄒陽이 梁나라의 옥에 갇힌 원통함은 혹 임금의 덕이 어두워서 그랬다는데 賈誼는 明主를 만났으나 長沙에 좌천되는 급함이 있었던 것은 또한 어찌서인가?<sup>16)</sup>

참조와 관련된 고사를 열거하면서 그 원인을 물었다. 특히 임금의 사랑 여부와 被讒者의 지혜의 유무 및 부모와 임금의 자질과 관계없이 참조 당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문제이다. 위 책제에 인용된 인물 중 성인으로 舜과 공자가 있다. 다음으로는 임금의 사랑이 돈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15) 柳壽垣, 『迂書』, 卷2, 「論科舉條例」, “凡於出題之際, 或經或史, 所問須含蓄不顯, 以觀對者才識.”

16) 金錫胄, 『息庵遺稿』 「別稿」, 下, <讒毀>, “帝舜有朕聖之訓, 叔孫有自絶之責. 唐虞至治, 仲尼大聖, 猶有此患何歟. 至於子胥之功, 不免鴟夷之浮, 或以爲君寵之不篤, 而楚姬之恩愛方隆, 又何以見剗鼻之禍歟. 鼂令之智, 竟被東市之誅, 或以爲深刻之賈禍, 而屈原之廉潔無私, 又何以有汨羅之沈歟. 申生待烹之殃, 或值人倫之變, 而伯奇非不遇慈父, 乃有伯勞之傷. 鄒陽梁獄之冤, 或值主德之昏, 而賈生非不遇明主, 乃有長沙之屈, 抑又何歟.”

楚姬와 伍子胥의 典故가 인용되었다. 深刻과 청렴함의 경우에는 鼂令과 屈原의 典故가 인용되었으며, 아버지의 자혜 여부에 따라 伯奇와 申生의 典故를 인용했다. 끝으로 임금의 덕이 두텁고 얇음에 따라 賈誼와 鄒陽의 전고를 인용했다. 맨 앞에 두 성인의 전고를 든 다음 참조의 원인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인물을 제시했으며, 아울러 이에 반하는 전고를 제시했다. 따라서 다섯 가지 분류에 각 두 명씩 인용되어, 총 열 명의 典故가 책제에 사용되었다.

김석주는 이 책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逐條했다.

순임금이 納言에게 명하여 성인이 참조에 대해 가르침을 남기게 했고, 子貢이 武叔을 배척하여 자기 쪽에서 먼저 절교함을 경계한 바 있습니다. 아! 唐虞는 지극한 治世였으나 백성들을 동요시키는 두려움이 있었고, 仲尼는 大聖이시되 혹 무고함에 속기도 했으니 讒毀의 해로움이 예로부터 그러합니다. 공이 높은 霸者 뒀나라에 이르러서는 재앙이 鴟夷로 매서웠으니, 오자서의 죽음을 두고 사람들은 혹 恩愛가 성긴 탓으로 보지만, 충애를 입으며 코가 베이는 형을 당하기도 했으니, 掩袖의 아름다운 美人이 그러한 예일 것입니다. 지혜가 넉넉하여 나라를 위해 도모할 만했으나 東市에서 원통하고 처참하게 되었으니, 鼂令의 재앙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혹 그의 深刻함을 탓하나, 충성스러우면서도 쫓겨난 이로는 또한 湘水에 빠진 屈原이 있습니다. 驪姬가 밤에 울 때 太子가 달려갔는데, 아버지가 자해롭지 못하니 人倫의 변고라 할 수 있으나, 벌을 잡은 伯奇는 吉甫를 아버지로 두었으나 <履霜>의 곡조는 지금도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梁나라에서 옷자락이 질질 끌리며 鄒生이 下獄된 것은 임금이 밝지 못해서이니, 어진 선비의 재앙입니다만 책문을 올린 賈傳는 文帝를 임금으로 두었지만, 천리나 떨어진 長沙에 좌천되었으니 옛사람이 슬퍼하는 바입니다.<sup>17)</sup>

17) 金錫胄, 『息庵遺稿』 「別稿」, 下, <讒毀>, “帝舜之命納言, 聖讒是訓, 子貢之斥武叔, 自絕有戒. 噫, 唐虞至治也, 而猶懼其震驚, 仲尼大聖也, 而或至於欺誣, 則讒毀之害, 自古而然矣. 至若功高霸吳而禍烈鴟夷, 則子胥之死, 人或諉之恩疏, 而寵而被劓, 乃有掩袖之佳人. 智優謀國而冤慘東市, 則鼂令之殃. 世或咎其深刻, 而忠而見放, 亦有沈湘之屈子, 驪姬夜泣, 太子雉經, 則父之不慈, 人倫之變也, 而援絳伯奇以吉甫爲父, 一曲履霜, 至今憐之, 梁園曳裾, 鄒生下獄, 則主之不明, 賢士之厄也, 而獻策賈傳以文帝爲君,

각각의 사항에 대해 김석주가 어떻게 문장을 재구성했는지 책제와 책문을 비교하면 뚜렷이 알 수 있다.

**策題:** 帝舜有朕聖之訓, 叔孫有自絕之責, 唐虞至治, 仲尼大聖, 猶有此患何歟.

**策文:** 帝舜之命納言, 聖讒是訓, 子貢之斥武叔, 自絕有戒, 噫, 唐虞至治也, 而猶懼其震驚, 仲尼大聖也, 而或至於欺誣, 則讒毀之害, 自古而然矣.

책제는, 순임금과 관련해서 『書經』 「舜典」 25장에 있는 “帝曰, 龍, 朕聖讒說殄行, 震驚朕師, 命汝作納言, 夙夜出納朕命, 惟允”을 인용했다. 책제에서 ‘나는 싫어한다.’는 ‘朕聖’이라는 어휘로 묻자, 김석주는 ‘納言’이라는 어휘로 답했다. ‘納言’은 왕명을 출납하는 관리이다. 중요한 것은 이 어휘가 책제가 인용한 자료와 같은 『舜典』에서 인용된 점이다. ‘帝舜有朕聖之訓’의 한 구를 ‘帝舜之命納言, 聖讒是訓’의 두 구절로 逐條하여 순임금이 가르치고자 한 본질을 드러내었다.

다음 구절은 숙손무숙에 관한 것인데, 『論語私淑錄』 19장에서 인용했다. 당시 촌나라 대부였던 숙손무숙이 공자를 혈뜯자 자공은 그러지 말라 하고, “人雖欲自絕, 其何傷於日月乎, 多見其不知量也.”라 하여 ‘自絕’하는 숙손무숙을 비판했다. ‘人’은 숙손무숙이고 ‘日月’은 공자를 의미한다. 김석주는 책문에서 숙손무숙을 주어로 하여 그가 自絕한 책임에 대해, ‘自絕’을 언급한 자공을 주어로 하고 武叔을 목적어로 하여 문장에 변화를 주었다.

순임금의 고사처럼 책제에서 한 구로 묻자 두 구로 답하여 상세함을 더했다. 이어 ‘唐虞至治’와 ‘仲尼大聖’ 구절 다음에 ‘而猶懼其震驚’와 ‘而或至於欺誣’를 서술해 그 의미를 부연했다. 이때 사용된 ‘震驚’은 역시 『서경』 「순전」 25장에 나오는 어휘이다.

다음은 임금의 총애를 입지 못하여 죽임을 당한 오자서와 임금의 총애를

---

千里長沙, 昔人所悲.”

입고도 재앙을 입은 楚姬의 典故를 인용한 부분이다.

**策題:** 至於子胥之功, 不免鴟夷之浮, 或以爲君寵之不篤, 而楚姬之恩愛方隆, 又何以見劓鼻之禍歟.

**策文:** 至若功高霸吳而禍烈鴟夷, 則子胥之死, 人或諉之恩疏, 而寵而被劓, 乃有掩袖之佳人.

오자서의 전고는 『사기』 <오자서열전> “乃自剄, 夫差取其尸, 盛以鴟夷投之江”에서 인용했다. 책제에서는 ‘至於○○之○, 不免○○之○’의 구로 물어 오자서에 대해 먼저 제시하고, 그가 겪은 참소의 결과를 제시했다. 반면 김석주는 오자서가 소속된 나라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공이 높으나 강에 버려진 불합리한 사건을 제시한 다음, 그가 바로 오자서임을 “至若○○○○○○○○○○, 則○○○○”이라는 형식으로 표현했다. 이 구조는 뒤에 이어지는 楚姬를 서술하는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책제에서 인물을 먼저 제시하고 그가 당한 화를 제시했다면, 김석주는 그 순서를 바꾸어 변화를 준 것이다. 이 서술 방식은 이어지는 인물들을 묘사할 때도 적용된다.

그러면서 오자서와 楚姬의 중요 정보를 첨가했다. 오자서에 대해서는 ‘功高霸吳’라 하여 吳나라를 霸國에 올려놓은 오자서의 공을 드러내었고, 楚姬에 대해서는 오자서를 서술한 구절과 같이 “則○○○○”이라는 구절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이름 대신 ‘掩袖之佳人’이라 하여 그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게 했다. 김석주는 책문의 주제에 맞게 특정 인물의 자질을 포착하여 한 구로 나타내었는데, 오자서는 ‘功高霸吳’로 楚姬는 ‘掩袖之佳人’로 나타내어 공이 높거나 아름다워도 참소의 화를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다.

**策題:** 鼂令之智, 竟被東市之誅, 或以爲深刻之賈禍, 而屈原之廉潔無私, 又何有汨羅之沈歟.

**策文:** 智優謀國而冤慘東市, 則鼂令之殃, 世或咎其深刻, 而忠而見放, 亦有

沈湘之屈子.

鼂聶과 굴원에 대한 김석주의 서술은 제시된 오자서와 楚姬의 서술 방식과 비슷하다. 이 방식은 申生과 伯奇를 서술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변주된다. 다음은 신생과 伯奇에 대한 부분이다.

**策題:** 申生待烹之殃, 或值人倫之變, 而伯奇非不遇慈父, 乃有伯勞之傷.

**策文:** 驪姬夜泣, 太子雉經, 則父之不慈, 人倫之變也, 而掇蜂伯奇以吉甫爲父, 一曲履霜, 至今憐之.

申生은晉나라 獻公의 태자이다. 『예기』 「단궁」에 신생이 누명을 쓰고 자살한 내용이 있다. 아버지 獻公이 驪姬를 총애하여 그 소생 奚齊를 후계자로 봉하고 신생을 烹刑에 처하고자 했으나, 그는 도망가지 않고 공경을 다했다. 김석주는 ‘신생’이라는 어휘 대신 ‘태자’로 그를 나타냈으며, 이에 대한 고사를 세 구절로 서술했다. 그뿐 아니라 앞서 서술한 오자서와 조령의 경우와 같이 ‘則○○○○’이라는 구를 쓰고 있으나, ‘○○○○’에 해당되는 구절이 다르다. 앞에서는 이곳에 화를 당한 사람을 넣었다면, 신생을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화의 원인을 기록했다. ‘父之不慈’로 인해 신생이 화를 당했음을 서술한 것이다. 구조가 달라진 만큼 앞의 구절도 다르게 변화시켰다. 오자서와 조령의 경우 인물의 정보를 하나의 長句로 표현했다면, 신생을 서술하는 경우에는 驪姬를 주어로 한 句를 만들고, 이에 더하여 신생을 지칭하는 太子를 주어로 한 句를 만들어, 두 句로 ‘則○○○○’의 전체를 형성했다.

伯奇는 周나라의 어진 재상 尹吉甫의 아들이다. 劉向의 『烈女傳』에 “윤길보의 아들 백기는 지극히 효성스러워 계모를 잘 섬겼다. 그러나 계모가 백기를 모함하여 죽이기 위해 벌을 잡아 독침을 뽑고 치마에 매달았는데 백기가 다가가서 떨어버리려 하매, 계모가 백기가 내 옷을 벗기려 한다 하니, 길보가 드디어 의심했다. 이로써 백기는 마침내 자살했다.”는 내용이 있다. 伯奇를 서술하는 부분에서도 앞에서 두 句로 서술한 것에 변화를 주어 세 句로



서술했다.

**策題:** 梁園曳裾, 鄒陽梁獄之冤, 或值主德之昏, 而賈生非不遇明主, 乃有長沙之屈, 抑又何歟.

**策文:** 鄒生下獄, 則主之不明, 賢士之厄也, 而獻策賈傅以文帝爲君, 千里長沙, 昔人所悲.

鄒陽은 뭇나라 梁孝王의 上客이 되었는데 羊勝의 참소로 투옥되었다가 간곡한 상소문을 올려 석방될 수 있었다. 그 글이 바로 <獄中上梁王書>이다. 鄒陽을 서술하는 부분은, 신생을 서술하는 방식과 달리 변화를 주었다. ‘鄒生下獄’이라는 참소의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則○○○○’이라는 구에 ‘則主之不明’이라 하여 원인을 제시했다. 그다음 ‘賢士之厄也’라는, 일종의 평을 단 것이다.

『사기』 <賈誼列傳>에 그는 文帝의 총애를 받았는데 周勃과 灌嬰의 시기로 長沙王의 太傅로 좌천되었다. 賈誼에 대한 서술은 앞에서 언급한 伯奇를 서술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책제에서 ‘賈生非不遇明主’이라 한 것에 대해, 김석주는 賈生을 드러낼 수 있는 그의 업적 가운데 책략을 잘 올린 점을 포착하여 ‘獻策’을 덧붙였다. 게다가 그가 좌천되어 太傅가 된 점을 반영하여 ‘獻策賈傅’로 주어를 삼았다. 또한, 책제에서 막연하게 ‘明主’라 한 것을 구체적인 명칭을 거론하여 가의를 좌천시킨 임금이 ‘文帝’임을 밝혔다. 이어 참소의 결과를 ‘千里長沙’라는 명사구로 마무리하여 여운을 주었으며, ‘昔人所悲’라 하여 참소의禍에 대해 공감대를 확대했다.

### 3. 設弊와 救弊를 통한 政見의 提示

과거에서 대책이라는 문체를 별도로 마련한 본래의 취지는 시무에 대한 견해를 평가하기 위함이었다. 이점은 책문의 본질이다. 책제에서는 현재 문제점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구하는데, 이것을 제시하는 것이 응시자들이

가장 힘써야 할 사항이었다. 응시자는 참신한 시무책을 짜임새 있는 문장으로 담아내야 하는데, 이 부분을 통하여 현실을 직시하는 통찰력과 경세가가 지녀야 할 자질을 드러내야 한다.

李裕元(1814~1888)은 『林下筆記』에 책문의 이런 특징을 잘 서술했다.<sup>18)</sup> 그는 『문체명변』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여<sup>19)</sup> 책문의 본질을 설명했다. ‘정치와 교화의 득실을 묻는 것’에 대해 응시자가 ‘일을 탐색하여 견해를 적어 올리는 것’이 책문의 본래 취지였다. 그러므로 책문에서 設弊와 救弊가 제일 중요하다. 設弊는 현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서술하는 것이며, 救弊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가가 강성해지는 방법을 서술한 <自強>의 設弊와 救弊 서술 양상과 김석주가 인식한 자강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인용문은 현재의 문제점 가운데 法制紀綱을 지적한 設弊의 앞부분이다.

신이 일찍이 들으니 옛적에 楚나라 昭王이 吳나라 병사가 郢 땅에 침범한 뒤로 옛 법을 구하여 적용하여 국가의 각 부서인 五官이 법식을 얻어 楚나라가 다시 강하게 되었습니다. 신은 이로써 法制를 닦는 것이 自強의 근본임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法制가 무너져 關石和鈞의 공평한 法道의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신은 일찍이 들으니 옛적에 晉나라 文公이, 惠公과 懷公이 (어길지 못해) 친한 사람이 없어진 시기를 당해 명칭과 직분을 정하고 구분 지어 綱紀를 정비하여 晉나라가 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신은 이로써 紀綱을 떨치는 것이 自強의 근본임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紀綱이 해이해져 『詩經』 械僕詩와 假樂詩의 내용과 같은 성대함이 없습니다.<sup>20)</sup>

18) 李裕元, 『林下筆記』 卷2, 『瓊田花市編』, <策>, “說文云, 策者謀也, 漢書音義曰, 作簡策難問, 例置案上, 在試者意投射取而答之, 謂之射策, 若錄政化得失顯而問之, 謂之對策, 劉鋹云, 射策者, 探事而獻說也, 以甲科入仕, 對策者, 應詔而陳政也, 以第一登庸, 皆選賢之要術也.”

19) 徐師曾, 『文體明辨』, 「策」 참조.

20) 金錫胄, 『息庵遺稿』 「別稿」, 下, <自強>, “臣嘗聞古有楚昭王者, 當吳兵入郢之後, 求用舊典, 五官得法, 而楚國復強, 臣以是知修法制爲自強之本, 而今也法制隳廢, 無關石和鈞之美矣. 臣嘗聞古有晉文公者, 當惠, 懷無親之餘, 定名卞物, 以飭綱紀, 而晉國遂霸, 臣以是知振紀綱爲自強之本, 而今也紀綱陵遲, 無械僕假樂之盛矣.”

<自強>은 강성한 나라를 위해 法制紀綱恤民得人鍊兵峙糧 분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 그 요점이다. 여섯 가지 사안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역대에 모범으로 삼을 만한 사례로 말머리를 열었다. 이어 그 효과를 제시했고, 당시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設弊로 삼았다.

法制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楚나라 昭王이 옛 법을 써서 다시 강성하게 된 사실로 법제를 정비가 自強의 근본이 됨을 보인 후, 현재는 법제가 무너져 공평한 법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책문준적』에서 設弊를 서술할 때 유의점으로, “設弊는 치밀하게 按排한다. 만약 여섯 가지 폐단을 물으면 매번 두 가지 폐단을 설정하고 문장의 길이는 대우를 맞추듯 해야 한다.”<sup>21)</sup> 라고 했는데, 김석주는 두 문제씩 짝을 지어 法制와 紀綱, 恤民과 得人, 鍊兵과 峙糧으로 대우를 맞추었다. 법제와 기강을 서술한 부분의 원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臣嘗聞古有楚昭王者, 當吳兵入郢之後, 求用舊典, 五官得法, 而楚國復強, 臣以是知修法制爲自強之本, 而今也法制隳廢, 無關石和鈞之美矣.

臣嘗聞古有晉文公者, 當惠懷無親之餘, 定名卞物, 以飭綱紀, 而晉國遂霸, 臣以是知振紀綱爲自強之本, 而今也紀綱陵遲, 無械模假樂之盛矣.

두 문장이 “臣嘗聞古有○○○者, 當○○○○之○, ○○○○, ○○○○, 而○國○○, 臣以是知○○○爲自強之本, 而今也○○○○, 無○○○○之○矣”의 구조로 매우 정교하게 대우가 맞춰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아! 밝으신 祖宗의 典則이 있음에도 정비되지 않음이 이와 같고, 힘쓰고 계신 우리 임금의 기강이 사방에 떨쳐지지 않음이 이와 같고,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 되는데 근본이 이미 상한 것이 이와 같으며, 재주 있는 인물은 세상에 필요한테 人才를 얻기 힘든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하물며 나라는 병사를 이용하

21) 『策文準의』, 「策文總論」, “設弊, 密密安排, 如問六弊, 每設二弊, 文字長短, 若對耦然.”

여 호위해야 하는데 국가를 호위할 병사가 없으니 自強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식으로 병사들을 먹이는데 병사들을 먹일 양식이 없으니 自強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진실로 이와 같이 되었는데도 오히려 스스로 돌이킬 줄 알지 못하니 어찌 다만 自強을 하지 못할 뿐이겠습니까? 신은 적이 危亡의 화가 朝夕에 닥쳐와 마침내 구제할 수 없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지식 있는 사람이 깨닫는 이유이고 뜻 있는 선비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입니다.<sup>22)</sup>

여섯 가지 분야에 걸친 폐단을 지적한 후, 이것을 총괄했다. 이 부분을 原弊라 하는데, 設弊한 다음 단락에 현재 自強이 되지 않는 문제점을 요약한 것이다. 法制紀綱에 대해서는 ‘而不〇之如此’의 句로 각각의 주어인 典則과 綱紀를 앞 구에 두어 法制와 紀綱이 닳이지 않은 상황을 말했다. 반면 恤民得人에 대해서는 ‘而〇〇之〇〇也如此’의 구로 변화를 주어 백성을 구휼하고 인재를 얻는 것이 잘 되지 않은 상황을 서술했다.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책문의 주제인 ‘自強’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마지막 사안인 鍊兵과 峙糧에 대해서는 自強과 직접 연결하여 서술했다. ‘〇況〇〇〇〇, 無〇〇〇〇, 則〇〇〇〇〇〇’의 구문으로 현재 상황으로는 鍊兵과 峙糧이 自強에 기여할 수 없음을 서술했다. 특히 ‘況’이라는 부사를 통해 앞의 네 가지 사항도 이와 같음을 나타내는 효과를 노려, 문장의 간결함을 얻었다. 設弊에서 두 가지 사항끼리 짝을 이루어 대우했듯이 原弊에서도 그 원칙이 유지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原弊에서는 세 가지 문장의 형태를 구성하면서도 점차 변화시키면서 마지막 문장에 自強과 연결하여 기세를 제고했다.

다음은 해결책을 제시한 救弊 부분을 살펴보겠다. 『책문준적』에는 救弊를 서술하는 방식이 상세히 기록돼있다. 救弊가 中頭에서 이미 서술된 내용과

22) 위의 책, “嗚呼, 明明祖宗有典有則, 而不修之如此, 勉勉我王綱紀四方, 而不振之如此, 民惟邦本, 而根本之已傷也如此, 才爲世需, 而人才之難得也如此, 而況國以兵衛, 而無兵而衛國, 則非所以自強也. 兵以食養, 而無食以養兵, 則非所以自強也. 噫噫, 苟爲如此而猶不知所以自反, 則夫豈特不能自強而已. 臣竊恐危亡之禍, 迫在朝夕, 而終莫可以救, 此有識之所爲寒心, 而志士之所以流涕者也.”

연계되어야 하며, 이것을 변화시켜 중첩되지 않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主司의 의도를 파악할 것과 문장의 지루함을 경계했고, 設弊에 이어 原弊하고 救弊하는 순서와 그 과정이 지켜져야 함을 밝혔다.<sup>23)</sup>

김석주는 <自強>에 대해 다음과 같이 救弊했다.

아! 신은 들으니 공이 높은 것은 뜻에서 말미암고 業을 이루는 것도 뜻에서 말미암는다고 하니, 이 뜻이 향하면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匹夫가 뜻을 가지면 오히려 반드시 이루는데 하물며 임금에 다스림에 뜻을 두는데 어찌 그 다스림을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임금에 뜻을 두고 帝王에 뜻을 두더라도 오히려 어려움이 없는데, 하물며 임금이 自強에 뜻을 두어 어찌 그 自強에 이르지 못하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말씀드리건대, 오늘날의 근심은 殿下께서 스스로 그 뜻을 강하게 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입니다. (…중략…) 그러나 百度가 해이해져 있고, 모든 일이 宴安에 빠져 있으며 모양을 내고 꾸며서 豐亨의 상황과 유사하니, 오늘 殿下의 뜻이 해이해짐에 가까워진 것입니까? (…중략…)

한 가지 일에 그 뜻이 해이해지고 두 가지 일에 그 일이 해이해지니 전하께서 그 뜻을 스스로 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뜻으로써 法制를 닦으니 法制가 어찌 어지러워지지 않으며, 이 뜻으로 기강을 진작시키니 기강이 어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 또한 백성이 궁핍하고 인재가 부족하며 병사가 적고 양식이 바닥나 나라의 형세가 날마다 위태로워지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sup>24)</sup>

23) 『策文準的』, 「策文總論」, “救弊只據中頭意思, 變換文字, 勿令重疊. 大抵主司之意, 既及當今, 必欲速見設弊, 既及說弊, 必欲速見救弊. 當今設弊, 不須支離, 既設弊之後, 始爲原弊, 曰弊之生既有如此如此, 愚所以以某事爲救弊之策也, 又反復申言不可不如是救弊之意. 未又略致效驗.”

24) 金錫胄, 『息庵遺稿』 「別稿」, 下, <自強>, “嗚呼, 臣聞功崇由志, 業成由志, 此志所向, 何事不做, 是故匹夫有志, 猶且必成, 則而況於人主之有志於治, 寧有不致其治者乎, 志王志帝, 猶且無難, 則而況於人主之有志自強, 寧有不底其強者乎, 由是言之, 今日之患, 其殆由於殿下之猶未能自強其志而然耳. (…中略…) 百度恬嬉, 徒事宴安, 彌文粉飾, 有似豐亨, 則今日殿下之志, 其不幾於弛耶. (…中略…) 一事而弛其志二, 事而弛其志, 而殿下之不能自強其志者多矣, 以此志而修法制, 法制安得不紊, 以此志而振紀綱, 紀綱安得不隳, 其亦無怪乎民窮而才乏, 兵單而餉缺, 而國勢之日隲於危也.”

김석주는 폐단의 해결책으로 군주가 뜻을 바로 세울 것을 제시했다. 이어 越衛燕漢宋과 비교하여 그들은 自強에 뜻을 두어 法制紀綱恤民得人鍊兵峙糧이 잘 이루어졌으며, 같은 처지에 있는 조선은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以此○而○○○, ○○安得不○’의 구문으로 총괄하여, 自強에 뜻을 바르게 두지 못하면 발생할 수 있는 효험을 서술했다.

아! 周나라 신하 王朴이 말하기를 “그 실수한 이유를 살펴서 다스릴 방법을 안다.”고 했는데, 다스리는 방법은 그 실수를 돌이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의 계책을 삼는 것으로 전하의 뜻을 먼저 돌이키는 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 진실로 전하께서 두려워하여 흥기하고 걱정하며 떨쳐서 스스로 그 뜻에 힘쓰며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의 치욕은 어찌서인가? 내가 그 뜻을 깨울리 할 수 있겠는가?”라 하시고 오직 그 약함을 강하게 하고, 그 쇠잔한 것을 진작시키며 그 치욕을 없애는 것을 뜻으로 여기시어, 그 뜻으로 法制를 밝히시면 法制는 반드시 밝아질 것입니다. 그 뜻으로써 紀綱을 가지런히 하시면 기강이 반드시 가지런해질 것입니다.<sup>25)</sup>

이 부분은 救弊의 마지막 단락이다. 현재의 실수를 돌이키는 것이 自強의 방법임을 제시했다. 設弊와 앞부분의 救弊에서는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면, 이 부분에서는 ‘吾’자를 여섯 번 반복함으로써 조선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울러 ‘吾’자의 반복을 통해 이에 해당하는 임금의 역할을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김석주가 제시한 救弊策이 임금 자신의 분발에 관련되기 때문에 ‘吾’자의 활용은 더욱 의미가 깊다. ‘吾國之○也何如, 而吾可以○其志乎’라는 구문을 세 번 반복하여 임금의 반성을 촉구했다. ‘弱’에는 ‘儉’, ‘衰’에는 ‘狃’, ‘恥’에는 ‘惰’로 그 뜻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한 것이다.

25) 위의 책, “嗚呼, 周臣王朴有言曰, 觀其失之之由, 而知所以治之之術, 治之之術, 在於反其失而已, 爲今之計, 亦莫若先反殿下之志, 苟殿下能惕然而興, 慨然而奮, 以自勵其志曰, 吾國之弱也何如, 而吾可以儉其志乎, 吾國之衰也何如, 而吾可以狃其志乎, 吾國之恥也何如, 而吾可以惰其志乎, 惟以強其弱振其衰祛其恥爲志, 以之而明法制, 而法制必明矣, 以之而整紀綱, 而紀綱必整矣..”

책문에서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책문은 그 문체 분류에서 주의류에 포함된다. 이것은 試官이 답안을 채점하더라도, 최종 수신자는 임금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임금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함은 물론, 그것이 개선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험도 반드시 함께 서술해야 한다. ‘以之而○○○, 而○○○必○矣’를 두 번 반복하여 법제가 닦이고 기강이 바로 섰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험을 제시했고, 恤民과 求士를 서술하면서는 변화를 주어 ‘以之○○, 而民必有○○之○矣’로 표현했다. 鍊兵과 峙糧은 함께 묶어 ‘不待~’ 句文으로 간략하게 서술한 다음, 그 효험을 길게 서술하여 본인이 제시한 救弊策이 옳은 것임을 강조했다.

이상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서술하는 設弊와 이에 대한 해결책인 救弊의 서술 방식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自強>은 비록 여러 책문 중의 하나에 불과하지만, 이 책문에는 김석주가 인식하는 국가의 自強이 자세히 표현되었다. 그는 自強에 이르기 위해 힘써야 할 부분을 세분화했는데 法制紀綱 恤民得人 鍊兵峙糧의 분야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서술했다.

#### IV. 맺음말

김석주는 17세기 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문인이다. 그는 여러 차례 문형을 역임했고, 개성 있는 문체를 확립하였다. 그는 한문사대가 등 이전 문인의 업적을 계승·발전시켰으며, 후대 문인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의 문장력은 책문과 같은 과거 과목을 준비하면서 단련되었다.

책문은 과문 六體 중 하나로, 정해진 형식에 따라 서술해야 한다. 따라서 치밀한 짜임새와 맥락을 형성하여 글을 끝까지 이끌어 가는 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쉽게 이룰 수 없는 문체이다. 내용면에서는 학식이 해박해야 하고, 표현면에서는 글 전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문장이 정교하게 안배되어

야만 비로소 한 편의 책문이 완성될 수 있다. 김석주의 책문은 모두 14편이 전하는데, 전부 과거 시험과 관련하여 창작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책문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본 연구에서 책문의 일반적인 문체적 특징을 고찰하면서 김석주 책문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는 책문에서 중요한 단계인 虛頭, 逐條, 設弊와 救弊를 중심으로 김석주 책문을 분석하였다. 허두는 책제를 이해하여 논점을 제시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해야 하고 동시에 참신해야 한다. 김석주는 책제에 따라 다양한 아이디어로 허두를 구성했다. 逐條는 책제의 내용을 변주하여 자신의 언어로 풀어쓰는 과정이다. 책제는 하나의 주제에 다양한 전고를 제시하며 답을 요구한다. 이때 풀어쓰는 어휘는 책제에 제시된 자료와 같은 출처에서 응용해야 한다. 김석주는 다양한 변주와 대구를 통해 이 부분을 짜임새 있게 서술했다. 設弊와 救弊는 책문의 본령으로 책제의 질문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는 부분이다. 여기서는 設弊와 救弊의 조응이 중요하며, 식견과 문제 해결능력이 발휘되어야 하는데, 김석주의 책문에는 이런 부분이 매우 잘 반영되었다.

책문의 창작을 통해 다져진 문장력은, 이후 김석주가 정계에 진출하여 100여 편이 넘는 상소문을 창작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記事文과 같이 문예 미가 가미된 산문을 창작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하게 된다. 후속 연구에서, 책문과 같은 과문이 여타의 산문에 미친 영향 관계를 조명해야 할 과제가 남는다.

※ 이 논문은 2017년 10월 3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12월 11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策文準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金錫胄, 『古文百選』,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 『息庵遺稿』, 한국문집총간 145, 민족문화추진회.  
김 현, 『수사학』, 문학과 지성사, 1985.  
김태환, 『策文』, 소나무, 2004.  
심경호, 『조선 시대 한문학과 시경론』, 일지사, 1999.  
김광년, 「息庵 金錫胄 散文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김대형, 「息庵 金錫胄의 奏議類 散文 研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김성애, 「식암유고 해제」, 『韓國文集叢刊解題』4, 민족문화추진회.  
박재경, 「조선시대 책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이영환, 「息庵 金錫胄의 文學論과 散文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박사학위논문, 2014.  
최 식, 「策文의 특징과 글쓰기 : 『策文準的』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39집, 2009.

Abstract

## A Study on Kim Seok-ju's Chaekmun

Lee, Young-whan

Chaekmun is a kind of subject in state examination which seek the delicate structure. The study on Chaekmun have to include Chaekjae. This study put together structure about Chaekmun' process.

Kim Seok-ju was very good at Chaekmun which answers to the King. He made preparations for the highest level state examinations thoroughly and became an authority in this field. And it is possible to see these facts through the quantity and the level of the answers to the King left in his posthumous works. He wrote as preparation for the answers to the King examination, four jeonchaek and seven jipchaek written on the actual examination site follow the predetermined formality of daechaek and reached the level of unique maturity in setting forth aspirations and rhetoric.

**key words** : Kim Seok-ju, chaekmun, composition, writing,  
state examination, expression